

Meritz 조선/기계

조선/기계 김 현

02. 6098-6699 / hyun.kim@meritz.co.kr



국내 주요 조선/기계 업체 Valuation

업체명	시가총액 (십억원)	외국인지분율 (%)	종가 (원)	1D	1M	3M	YTD	PER(x)		PBR(x)		ROE (%)	
				(%)	(%)	(%)	(%)	17E	18E	17E	18E	17E	18E
현대중공업	8,924.8	20.8	157,500	-1.3	8.6	-10.5	13.8	56.7	128.2	0.8	0.8	1.3	0.6
현대로보티스	6,995.1	20.3	429,500	-0.6	0.8	-11.6	N/A	4.7	5.3	0.9	0.8	19.4	15.8
현대미loyd	939.9	5.8	236,000	0.4	2.6	-26.9	N/A	11.6	7.8	1.1	1.0	9.5	13.1
현대건설/기계	1,436.1	10.3	355,500	-0.8	-3.5	-8.4	N/A	11.2	8.6	1.5	1.3	13.1	15.8
삼성중공업	4,758.0	18.6	12,200	1.7	8.9	6.1	31.9	61.9	132.0	0.8	0.7	1.2	0.6
대우조선해양	1,890.5	2.8	18,000	5.9	N/A	N/A	-59.8	1.1	11.7	0.5	0.5	64.1	4.3
현대미포조선	2,180.0	14.1	109,000	-1.8	15.8	-22	62.2	10.7	37.0	0.9	0.9	8.9	2.4
한진중공업	387.1	4.1	3,650	0.1	-3.9	-17.6	8.5	-11.4	8.2	0.4	0.4	-3.8	5.1
현대엘리베이터	1,362.2	31.1	55,300	0.2	10.7	7.4	-37	10.3	9.8	1.5	1.3	15.9	14.6
두산밥캣	3,604.0	24.6	35,950	-1.4	-1.6	-22	0.3	15.8	14.5	1.0	0.9	6.6	6.7
현대로템	1,661.8	28.3	19,550	1.6	10.5	6.3	7.7	37.1	25.0	1.2	1.1	3.2	4.6
하이록코리아	340.3	47.5	25,000	1.2	18.5	7.1	18.5	13.1	11.5	1.1	1.0	8.5	9.0
성광밴드	284.6	14.7	9,950	0.4	6.5	1.6	12.3	32.2	18.5	0.6	0.6	1.9	3.2
태광	266.3	16.7	10,050	0.0	8.2	2.9	21.2	37.6	20.7	0.6	0.6	1.6	2.9
두산중공업	1,809.8	8.9	17,000	-1.4	-0.6	-8.6	-37.5	-978.8	9.3	0.6	0.6	0.1	6.1
두산인프라코어	2,000.3	11.3	9,640	2.1	17.4	12.2	9.3	10.0	8.5	1.0	0.8	9.6	10.4
두산엔진	312.4	5.1	4,495	39	127	64	36.8	31.0	29.9	0.6	0.6	1.9	1.9
한국항공우주산업	5,478.1	20.3	56,200	-1.2	28.6	44.1	-16.1	50.1	22.8	3.7	3.3	7.3	14.9
한화테크윈	2,111.9	21.4	40,150	2.7	20.9	6.6	-7.6	28.2	19.5	0.9	0.9	3.2	4.5
LIG넥스원	1,592.8	19.9	72,400	0.4	-0.5	-9.3	-10.1	16.2	15.0	2.2	2.0	15.6	14.2
태웅	386.1	22	19,300	0.8	15.9	-12.1	-14.0	49.9	17.1	N/A	N/A	1.2	3.5
동성화인텍	133.7	3.5	4,955	0.6	-0.6	-18.8	-13.8	N/A	N/A	N/A	N/A	N/A	N/A
한국카본	261.1	16.6	5,940	0.0	1.7	-3.3	-1.8	19.9	26.9	0.8	0.8	4.1	3.0

주: 커버리지 업체 PER/PBR/ROE는 메리츠증권증권 추정치, 그 외 업체는 Bloomberg 컨센서스 수치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표 및 차트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종결 눈앞 하이투자증권 매각, 中 운용사 참여는 결국 '해프닝'

하이투자증권 인수에 홍콩계 자산운용사 HKAM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고 보도됐으나, 매각주관사 EY한영은 LOI는 접수하지 않았다고 알려짐. 현대중공업그룹과 DGB금융은 하이투자증권 거래금액을 장부가(약 4,450억원)으로 합의했고 하이자산운용과 현대선물을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보도됨. DGB금융은 8일 이사회에서 인수를 확정하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될 전망. (인베스트조선)

2019년 이후 노후 유조선 대거 퇴출

유조선 해체량은 고철과 상승, 선가 및 운임 압세로 올해 7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함. 업계 관계자는 현재 선복과잉 상태는 맞지만, 향후 몇 분기간 노후선 해체량이 신조선 인도량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함. Clarksons에 따르면 해체되는 유조선의 평균 선령은 22년, BIMCO는 평균 선령을 25년으로 집계함. (선박뉴스)

DBS hikes provisions on offshore exposure

싱가포르 DBS Group은 Offshore 산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약 2배 규모인 8억 1,500만 SGD(약 6억달러)로 늘렸다고 발표함. DBS는 석유 및 가스 부문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노력했으며, 3분기말 기준 DBS의 부실자산은 30억 SGD 규모고 충당금 규모는 약 15억 SGD로 알려짐. (TradeWinds)

Goliath 'set to be a loss-maker' - report

노르웨이 환경단체 Bellona의 보고서에 따르면, Eni의 Goliath 유전은 회사의 내부 BEP 수준인 50달러보다 약 25달러 높아 적자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짐. 보고서는 Goliath의 순현재가치가 약 15억달러 적자라고 주장함. 낮은 수익성을 계획보다 높은 자본 지출과 현금흐름이 늦게 발생함에서 왔다고 알려짐. (Upstream)

Long-haul VLCC trade growth 'cannibalises' smaller tankers

Alphatanker에 따르면, 최근 중국, 북해, 북미산 원유를 VLCC로 운송하는 경우가 늘고 있음. 대서양을 건너 아시아로 수입되는 원유 물동량이 늘면서 운임을 낮추기 위해 장거리 수송이 증가함. VLCC가 상대적 강세를 나타내면서, Aframax, Suezmax, LR2 탱커 등이 피해를 본다고 언급함. (TradeWinds)

South China Sea dominates LNG trade

글로벌 LNG 물동량 중 약 40%, 매년 4.7조CBM 규모의 LNG가 남중국해를 통과함. EIA에 따르면, 특히 말레이시아와 카타르의 주 무역로가 남중국해로 알려짐. 또 중국은 LNG 수입량 2/3 이상과 대만 LNG 수입량 90% 이상이 통과하며, 2018년에 한국을 제치고 최대 2위 LNG 수입국으로 전망함. (TradeWinds)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7년 11월 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7년 11월 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7년 11월 7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현)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원칙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